

PEOPLE

2025년 8월 6일 수요일

광주시사회서비스원

5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 달성

광주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대삼·사진)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2024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것으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기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기관과의 협력 기반 조성,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확대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리더십과 전략 실행력, 사회서비스 민간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성과, 정부위탁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국·공립시설의 민간이전 계획 수립 및 실행 노력 등 실행 중심의 전략적 운영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김대삼 광주시사회서비스원장은 "5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은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속에서도 본부와 소속시설까지 조직원 전체가 함께 혁신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 중심의 돌봄과 복지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스카이장례식장 체육인 장례서비스 제공 협약

광주시체육회가 장례서비스 전문화와 체육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스카이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체육회 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고일관 스카이장례식장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체육회-스카이장례식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장례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스카이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시체육회 및 회원단체 등 광주체육인들에게 고품질 맞춤형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 내용으로는 임직원, 선수, 가족 등 광주체육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시체육회와 스카이장례식장 간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송하중 기자

한전KDN, 아동시설 제습기 기부

한전KDN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아동시설에 제습기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전KDN이 정보통신(ICT) 전문성을 살려 추진 중인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KDN IT을'을 구축했던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기기지원뿐 아니라 아동 생활공간의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한전KDN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며 실내 습도와 곰팡이, 세균 문제가 심화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은 실내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된 시설에 2대씩 총 16대를 전달했다.

기부 대상 시설은 최근 시행한 'KDN IT We로', 'KDN IT을'의 사후관리가 시행되지 않은 기관을 우선으로 시행됐으며 단순한 일회성 물품 제공이 아닌 실질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승홍 기자

“고3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응원합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수능 D-100일 맞아 응원편지 서석교·광덕고 3학년 교실 방문 “조금 더 힘내시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일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에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응원편지를 보내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광주서석고등학교와 광덕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초·중·고 12년 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남은 100일 동안 조금 더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수능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겠다”며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이 시작될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정선 교육감이 5일 광주서석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방문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이 2년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직원들과 퇴임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 퇴임

“도민과 함께한 시간, 모두의 성장이었다”

강성휘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이 2년 9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2022년 11월 취임한 그는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남형 공공돌봄체계 혁신에 주력해 왔다.

강 원장 재임 기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직원 수는 143명에서 421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수탁기관은 5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도 10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2년 14만1800여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세 배 이상 확대됐다.

성과는 외부 평가에서도 입증됐다. 고객만족도는 2022년 83.4점에서 2024년 85.8점으로 상승하

며 개인 이력 최고점을 기록했고, 전남도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5년 연속 달성,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A등급 3년 연속,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다수의 성과를 남겼다.

특히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긴급돌봄서비스를 현장 지원한 사례는 전남도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퇴임식에서 강 원장은 “이 모든 성과는 도민의 성원과 임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공공기관으로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춘성 조선대 총장, 기초질서 준수 챌린지 참여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이 ‘기초질서 지역사회 붐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5일 광주경찰청과 조선대 등에 따르면 김춘성 총장은 이날 대학본부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생활 속 기초질서 지키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축하며, 각 기관과 단체장은 후속 릴레이 주자를 자유롭게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준성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안전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이근배 전남대 총장에 이어 김춘성 조선대 총장이 4번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서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양·활동 교육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5일 서구 뽕촌동 천원서시 흥보관에서 열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양 및 활동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



전남대학교총동창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안군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무안군청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영필 사무처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류혜경 회장, 김산 무안군수, 서해현 의대동창회장.

전남대총동창회, 무안군에 수해 복구 성금 500만원

전남대학교총동창회(회장 류혜경)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안군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무안군청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은 5일 무안군청에서 김산 무안군수, 류혜경 전남대총동창회장, 최희동 수석상임부회장, 서해현 의대동창회장, 김영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을 전달하고 수해 복구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무안군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지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남대총동창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총동창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미얀마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성금을 전달하는 등 국내외 재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무안=이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서구 ‘가위로 전하는 선한 영향력’ 눈길

13년째 어르신 미용서비스 제공...올해 446명 혜택

광주 서구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가위소리 미용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가위소리 미용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머리를 손질해드리는 생활밀착형 착한정책이다. 단순한 미용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외로움과 단절 속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활력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8차례의 봉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18곳 436명과 거동이 불편한 가정 10세대 10명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사)대한미용사회 광주서구지회 소속 미용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정기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에 참여한 미용사도 “처음에는 단순히 재능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들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다”며 “이 시간이 제게도 큰 선물이다”고 말했다.

윤윤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동신대-전남이주여성상담소, 유학생 인권 보호 협약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원장 오성록)은 최근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전남이주여성상담소(소장 원진선)와 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동신대